

PA-042

쌀보리(*Hordeum Vulgare* L.) ‘백수정찰’의 주요 농업형질 특성 및 수량김양길¹, 윤영미¹, 이미자¹, 김경호¹, 강천식¹, 오세관¹, 이점호¹, 김태현¹, 박종호^{1*}Yang Kil Kim¹, Young Mi Yoon¹, Jong Ho Park¹, Mi Ja Lee¹, Kyung Ho Kim¹, Cheon-Sik Kang¹, Sea kwan Oh¹, Jeom Ho Lee¹, Tae Heon Kim^{1*}¹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¹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NICS), RDA, Wanju, 55365, Korea**[서론]**

최근 식생활 변화에 따른 건강식품소재로 보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가공적성이 우수한 품종 요구에 따른 생산자 및 수요자 충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밥지는 후 갈변현상이 적고 백도가 좋은 쌀보리 ‘백수정찰’이 개발되었기에 주요 농업형질 특성 및 수량성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전북 전주, 전남 나주, 경북 대구, 경남 진주 등 4개 지역에서 답리작(논) 조건으로 새찰쌀보리를 대비로 시험하였다. 시험재배는 각 지역별 표준재배법으로 시험하였으며, 농업형질 특성 및 수량구성요소, 수량 등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RDA 2012)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내한성은 경기도 연천, 보리호위축병은 익산 등 상습발병포장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쌀보리 ‘백수정찰’의 농업형질 특성 및 수량성을 시험한 결과,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시험한 내한성 정도는 고희 재배시 고사 주율이 66.7%, 저휴 23.3%로 새찰쌀보리(66.3, 12.3)보다 고사주율이 높아 한해는 새찰쌀보리보다 약하였으며, 토양전염 바이러스병인 보리호위축병은 2정도로 새찰쌀보리와 비슷하였다. 출수기는 4월 20일로 새찰쌀보리보다 1일 늦은 출수를 보였으며, 성숙기는 5월 26일로 2일 늦게 성숙하였다. 간장은 75cm로 새찰쌀보리 대비 7cm 정도 짧아 도복에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장은 4.3cm, 1수 립수는 48개, 천립중은 29.5g 정도로 나타났다. ‘백수정찰’의 조곡 수량성은 4개소 평균 5.05톤/ha의 수량을 나타냈고, 경남 진주지역에서 5.54톤/ha으로 새찰쌀보리 대비 22% 높은 수량성을 나타냈다. 특히 ‘백수정찰’은 프로안토시아니딘(0.15%→0.01%) 함량이 낮아, 보리밥 저장(24시간) 후 백도 변화는 ‘백수정찰’ 35.1→32.1로 새찰쌀보리(30.0→19.9)에 비해 변하지 않았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 (과제번호: PJ015004022020)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주저자: Tel. +82-63-238-5226, E-mail. ark0104@korea.kr